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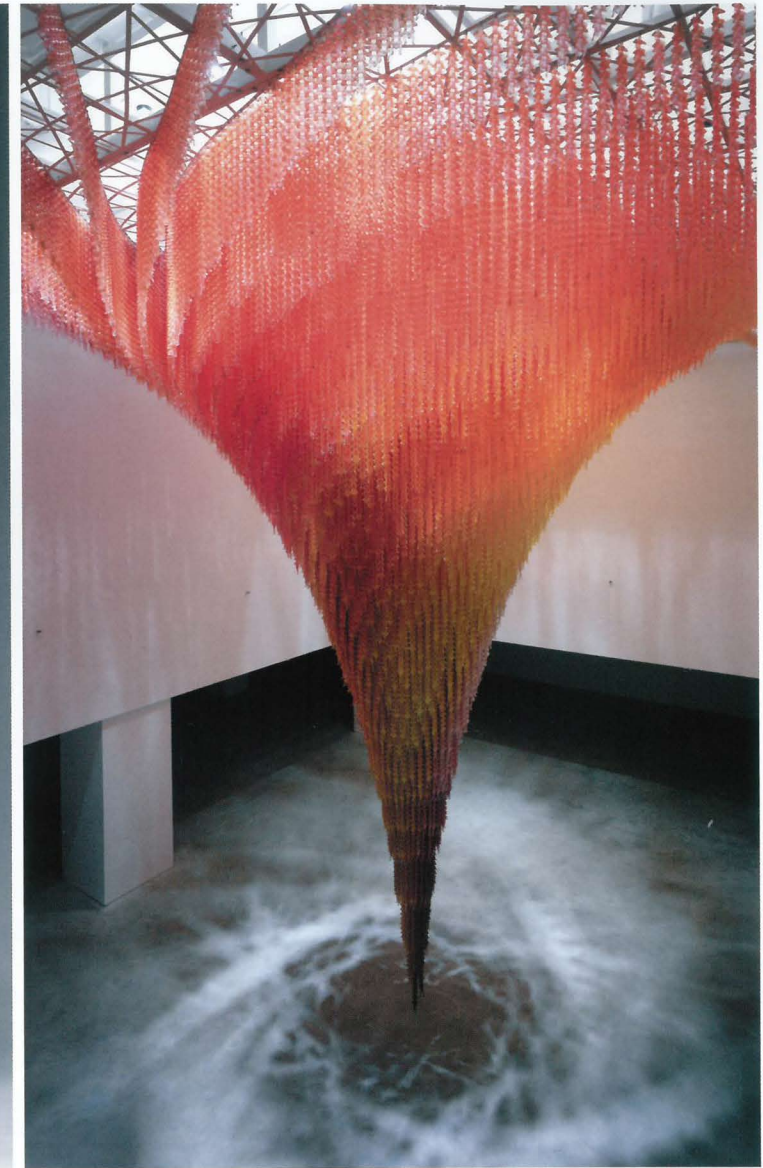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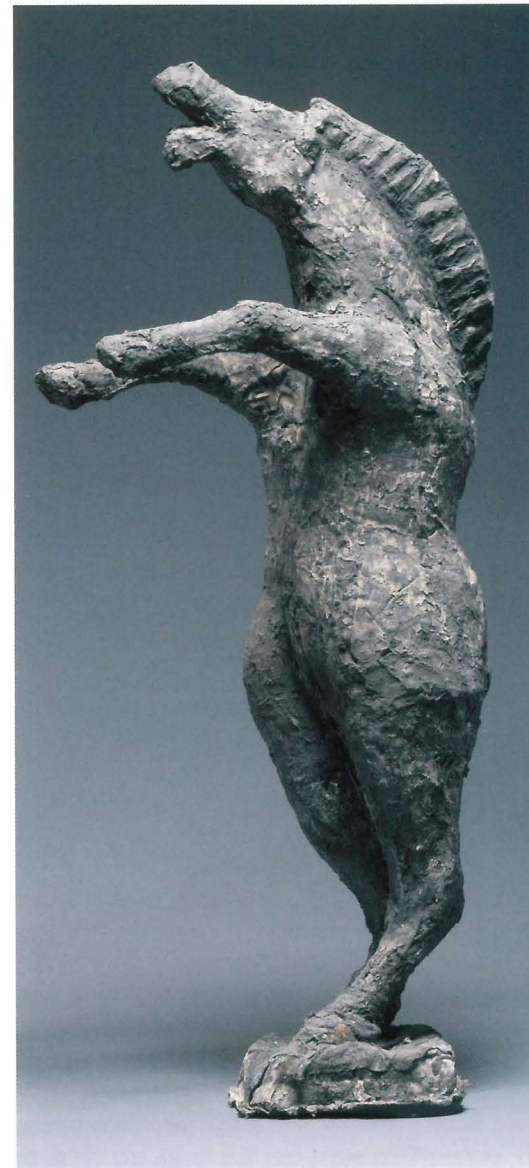


▲ 권진규 _ 남자흉상 _ 46.5×29×24.1cm _ 석고 _ 1970년대

HITE COLLECTION 개관전

하이트문화재단, 하이트맥주 청담동 본사 내 전시관 '하이트컬렉션' 개관
기업이 소장한 권진규의 '탈주' 40여 점, 서도호의 설치작 '인과' 공개

2010. 10. 11(월) - 2011. 3. 4(금) 하이트 컬렉션 T.02-3219-0271 (강남구 청담동)



◀ 권진규 _ 서 있는 말 _ 76×30.5×35cm _ 건칠 _ 1960년대 후반 / ▶ 서도호 _ 인과 Cause & Effect _ 1158×868.5×800cm _ 스텐파이프, 아크릴, 스텐와이어 _ 2009

하이트문화재단이 하이트맥주 청담동 본사 내에 전시관 '하이트컬렉션'을 지난달 8일 개관하면서 재단이 소장해 온 권진규의 '탈주'와 서도호의 '인과'를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열었다. 2007년 설립된 하이트문화재단은 재단과 (주)하이트맥주 소유의 작품을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미술감상의 장을 확대하고 공공과 소통하기 위해 본사 내에 전시관을 조성했다.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총 면적 453평 규모의 이 전시 공간 마련을 통해 고객과 회사간 또는 임직원 상호간 소통을 지향할 것이며, 그간 재단이 소장해 온 작품들을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하이트컬렉션 2층에 마련된 권진규 전은 '탈주'를 주제로 하여 현재 너머의 시공간인 영원과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탈주하여 존재의 본질과 근원을 탐구했던 권진규의 작품 세계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또 지하 1층 바닥부터 지상 1층 로비 천정까지 이어지는 8m 규모의 대형 설치작품은

서도호의 '인과'이라는 제목의 전시이다. 이 작품은 11만여 개의 작품인 물상으로 역동적인 토네이도를 상징하고 있다. 특히 작품 설명을 돕기 위해 제작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공간 및 작품 고안, 설계 과정의 드로잉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하이트진로그룹 관계자는 "하이트컬렉션 개관은 기업이 미술애호가이자 컬렉터로서 미술계에 활기를 불어 넣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 전시회는 미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1등 주류전문기업으로서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_취재부